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2, No.4 (July 2002) pp.155~171

현대패션에 나타난 Trompe-l'œil(트롱쁘-뢰이유, 눈속임)에 관한 연구

손 영 미 · 조 영 아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시간강사

A Study on Trompe-l'oeil Expressed in Modern Fashion

Young-Mi Shon · Young-Ah Cho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Chosun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Chosun University
(2002. 5. 31 투고)

ABSTRACT

Trompe-l'oeil technique strategically conceived with a view to effectively realize creative ideas among the expression techniques of fine arts style has provided the driving force in development of fine arts and has continuously influenced development of the modern fashion pursuing unique individua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pen a new horizon for the development of fashion as a practical art, and to seek the expansion of the creative domain and ultimately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original and creative fashion by examin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rompe-l'oeil, which has long been utilized and positioned as one of the leading fine arts techniques with the advent of surrealism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nd the modern fashion.

The study is focused first on finding out how Trompe-l'oeil technique originated in connection with researching the fashion of Trompe-l'oeil and on analysing the techniques of expression, and then on investigating into Elsa Schiaparelli, pioneer of Trompe-l'oeil technique to identify her influences, and finally on classifying clothes employing Trompe-l'oeil technique by their expression method to examine how Trompe-l'oeil technique has been applied to modern clothes.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er has referred to fine arts books, collection of pictorial records and the like to gain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rompe-l'oeil and to examine the expression method and the features of Trompe-l'oeil, and collected and referred to fashion books and fashion magazines to

* 이 논문은 교육부 지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조선대학교 산업디자인 특성화 사업단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understand Elsa Schiaparelli and the expression tendencies of Trompe-l'oeil in modern fashions. Particularly, the researcher has attempted to search the correlation between modern fashion and Trompe-l'oeil techniqu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has managed to classify Trompe-l'oeil techniqu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into 'harmony', 'application of the human body', 'front and back', 'surface and inside', 'completion of the incomplete' and 'detail.' The researcher has also noted that Elsa Schiaparelli, a surrealist first applied Trompe-l'oeil technique to clothes and confirmed that quite a few avant-garde clothes designers following Elsa Schiaparelli, by using Trompe-l'oeil technique in clothes, recently recreate fresh feelings.

Key Words: Trompe-l'oeil technique (눈속임기법), Elsa Schiaparelli (엘자 스키야파렐리), Modern fashion (현대의상)

I. 서 론

패션은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종교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위기의식, 복잡한 상황들이 패션의 다양한 조류와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 가운데서도 각 예술양식에 나타났던 다양한 표현방법은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공통된 표현기법을 보이면서 현대패션에 새롭고 독창적인 영감을 제공해 주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다각적인 표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미술, 그 중에서도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가 크게 주목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법과 재료에 따르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패션디자이너들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미술양식의 표현기법 중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안된 트롱쁘-뢰이유(Trompe-l'œil) 기법은 미술의 전개과정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으며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의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응용한 의상 및 그 특징을 검토하는 것은 현대패션에서 연구의미와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확고한 이즘이 사라지고 유동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문화 속에서, 트롱프-뢰이유 기법을 이용한 의상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의상의 본질적인 면에 디자이너의 풍부한 감성을 추가하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의상을 표현하였다. 즉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의상은, Elsa Schiaparelli가 제작한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니트 스웨터 이후 Jean Paul Gaultier, Jean Charles de Castelbajac, John Galliano, Franco Moschino 등의 전위적인 디자이너에 의해서 신선한 감각으로 재창조되어 실용적인 의상에 초현실적인 감각을 추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그들의 컬렉션에게 우리가 종종 유머와 재치가 번득이는 디자인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오래 전부터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20세기 초현실주의의 발생과 함께 중요한 미술기법의 하나로 자리잡은 트롱쁘-뢰이유 기법과 현대복식과의 상호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실용예술로서의 복식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복식의 창작영역의 확대를 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의상을 창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현대복식에 표현된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선 트롱쁘-뢰이유 기법이 어떻게 발생하였고 그 표현방법들은 어떠한지를 분석하였고, 의상에 있어서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선구자인 Elsa Schiaparelli에 대해 연구하여 그녀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복식에서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응용한 의상을 그 표현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럼으로써 트롱쁘-뢰이유 기법이 현대의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개념적 이해와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표현방법 및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미술서적과 화보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Elsa Schiaparelli와 현대복식에 나타난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표현경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패션관련 서적과 패션잡지를 수집하여 고찰하였고 특히 사진 자료를 통해 현대복식과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관계를 관련지어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Ⅱ.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이론적 배경

1.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정의

불어로 트롱쁘-뢰이유(Trompe-l'œil, 눈속임)라고 불리는 이 눈속임 기법은 넓은 의미로 착각기법 또는 착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착각은 모든 감각에서 인정되는 반면 시각에서의 착각만을 특히 주목하여 이를 착시(Illusion)라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1]. 착시란 크기나 형태, 길이나 거리, 색채나 움직임 등과 같은 하나나 둘 이상의 시각적 자극속성에 대한 바르지 못한 지각[2]을 말하며 현실에 있는 것이 왜곡되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다[3]. 이와 같이 시각적인 오인을 착시라 한다. 착시는 대상의 물리적 조건이 동일하다면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경험하게 되는 지각현상이다. 마치 마술사의 요술과도 같이 착시현상은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경험의 정상적 상황을 넘어서 재미있고도 신비스러운 시각경험을 우리에게 새롭게 느끼게 해준다. 또한 좁은 의미로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테크닉을 일컫는다.

트롱쁘-뢰이유 기법에 대해 뭔가를 연구하려면 불가피하게 Zeuxis[4]와 그의 그림에 속은 새들의 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무도 사실적인 그림으로, 그림과 현실을 혼동하게 만들었던 Zeuxis 역시 경쟁자가 그린 커튼을 열어 젖히려고 함으로써 트롱쁘-뢰이유 기법에 속은 경험이 있다. 또한 Zeuxis는 포도송이를 들고 있는 소년을 그렸을 때 새들이 포도알을 쪼아먹으려고 날아들자, 그것을 실패의 신호로 여겼다. 포도송이들은 새들을 끌어들였지만, 소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그리지 못해 새들을 쫓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이다[5]. 이렇듯 완벽한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주변 환경에 완전히 통합되고, 철저한 계임 연출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다.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속이기 위해 고안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우 성공적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은 그것을 언제나 문제없이 사실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관객은 이미지를 처음 보고는 놀란다. 그리고 시선을 계속해서 바로 잡고 조정해서 의심과 확신의 감정을 번갈아 가며 갖게 된다. 당황한 관객은 시각적 메시지와 지성에 의한 메시지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다. 아마 이성적으로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겠지만 관객의 반응은 수동성을 포기하고 확인해보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현대복식에 새로운 조형양식을 선사하면서 독특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종래의 의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식의 의상을 탄생시켰다.

2.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표현방법

플라톤은, 예술은 현실을 그대로 담은 것인 동시에 가짜이며 환각[6]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관객들은 회화나 조형물 앞에서 언제나 속는 셈이다. 관객들에게 석재는 생명을 연상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이미지들은 관객들에게 어떠한 행동이나 정신상태를 암시한다. 그리고 2차원의 회화작품은 관객들에게 3차원의 공간을 연상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묘사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의지적인 행위에 호소한다. 작품의 내용을 있을법하다고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세부묘사의 사실

성과 공간 구성을 보고 작품 전체를 '사실'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눈속임이지만 '사실'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공간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화가의 화풍이다. 우리는 여기서 원근법 즉, 2차원의 작품에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본질적 요소인 3차원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경험적 또는 수학적인 방법들 전체를 다루어야함을 깨닫게 된다.

관객은 처음 작품을 대하자마자 놀라고 속는다. 관객의 지각은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주변 세상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자신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며 그림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만져본다. 완벽한 속임수인 것이다.

1) 그림 속의 그림

'그림 속의 그림'이라는 트롱쁘-뢰이유 표현방법은 그림 안에서, 두 개의 상태 또는 공간이 하나의 관점에서 관찰되어 시공적 경험을 변경시켜 놓는 방법이다.

'베로나 근처의 성스러운 가족의 환영(Vision de la Sainte Famille près de Vérone)' <그림 1>이라는 작품에서 Angolo del Moro는 캔버스에 팽팽히 당겨진 유화를 그렸다[7]. 이 유화의 윗부분은 찢어지고 말려 있어 베로나 지역의 구름 낀 하늘의 환영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찢어지고 말려 있는 부분 역시 그림 속에 그려진 그림으로, 마치 진짜로 그림이 찢어진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트롱쁘-뢰이유 기법이다.

거의 4세기가 지난 뒤에 Magritte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실세계의 3차원을 도입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관객이 그의 작품 '인간의 조건 Ⅰ, Ⅱ(La condition humaine Ⅰ, Ⅱ)' <그림 2>, '산봉우리의 유혹(L'appel des cimes)' <그림 3>이란 작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문 밖의 풍경과 실내 안에 있는 이젤 위의 그림을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관객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완벽한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림을 감상하는 조예 깊은 관객들은 그림의 두께를 말해주는 흰 모서리와 받침대의 높이를 통해 이 그림의 이중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환상과 현실을 이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초현실적이고 끝없이 풍부한 해석의 가능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F. Clerici가 말했듯이, '놀라운 동시에 눈부시고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8]' 현대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가장 미묘한 면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Magritte의 회화는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부조리한 신비적 세계를 보여주며, 실재와 허구와의 완전한 융화가 이루어져 그 자신이 말했던 '절대적 신비로서의 현존'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일상적인 현실에서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 환상의 세계를 발견해 내었다[9].

2) 인체의 응용

'인체의 응용'이란 트롱쁘-뢰이유 표현방법 중 자주 등장하는 방법으로, 인체에 전혀 다른 낯익은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그림이 인체를 표현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낯익은 이미지를 표현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법이다. 이것은 낯익은 물체나 일상적인 이미지를 뜻하지 않은 장소에 배치하여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 쇼크를 주는 동시에 신비로움을 유발[10]해 내기도 한다.

이 방법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1934년에 제작된 Magritte의 작품 '능욕(Le viol)'은 여성의 얼굴에 몸의 형상을 표현[11]한 이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눈알은 튀어나와 있고(여성의 유방), 작게 오므린 입을 갖고 있으며 (여성의 음부), 입 주변에는 털뭉치가 있으며(여성의 음모), 코가 있을 위치에 구멍만 한 개 있는(여성의 배꼽)[12] 이 작품은 전혀 상관없는 이미지들의 결합보다는 신비스러운 연관성을 보여주는 병치, 즉 '선택적 유사성'에 대한 작가의 당시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양식은 극히 사실적이면서 폭력적이어서 작품의 혼란스런 특성들이 잘 포착된다[13].

역시 Magritte의 작품인 '붉은 모델(Le modèle

rouge)'<그림 4>은 한 켤레의 구두가 그 끝부분에서 실제의 발가락으로 변해버리는 장면이 표현되어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을 결합하고 있다. 여기서 물론 포함하는 것은 '신발'이고 포함되는 것은 '발'이다[14]. 신발 속에 들어있는 발이란, 우리의 사고로는 신발과 늘 함께 있는 것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신발만이 보일 뿐 발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Magritte는 이렇게 유사한 두 현실을 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혼동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1937년에 제작된 '막 세네트 예찬(En Hommage à Mark Sennett)'<그림 5>에서는 여성의 유방이 옷장에 걸려있는 투과성 있는 나이트 가운과 혼합되어 완전히 성숙된 관능미로 존재[15]하면서 이 그림에서 표현하려는 것이 유방인지 아니면 나이트 가운인지에 대한 혼동과 착각에 사로잡히게 한다.

3) 채색된 건축물 외벽

건물 외관을 기하학적 그림들로 장식한 고대와 중세 이후에 베니스와 토스카나에서는 그리자유(Grisaille)[16]로 외관을 꾸미는 전통이 도입된다. 또한 16세기 초 로마의 외부 장식은 매우 과장되어 입상이나 돌출된 프리즈[17]로 벽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Peruzzi나 Polidoro da Caravaggio와 같은 고고학에 푹 빠진 예술가들이 주로 이러한 작품을 창조하였다. 그들은 로마에 있는 교황 주변으로 계속 밀려드는 토스카나의 신흥 부자 고객들의 요구에 이런 식으로 부응하였다. 이렇게 해서 로마는 화려하지만 작위적이고 일시적인 장식의 거대한 조직체로 변하였다.

이렇듯 과거의 화가들이 건축물에 벽을 세우고 그 벽을 고상하게 만들었다면 20세기의 예술가들은 이 벽을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회화작품을 이용하여 허물려고 애를 쓴다. 따라서 현대의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벽면 외관에는 종종 맞은편과 통하는 터널, 붕괴된 벽, 또는 창문들이 그려져 우리로 하여금 건축물 외벽임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Fabio Rieti가 파리의 한 건물 외벽에 그린 '바흐(Bach)'<그림 6>라는 작품은 높다란 사다리에 올라가 바흐의 사진을 보고 그를 그대로 옮겨 그리는 한 화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관객인 우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다리와 화가를 실제 현실의 사물이나 인물로 착각하게 되지만 실은 이것 또한 그려진 것으로써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작품이다.

1980년 Richard Hass의 작품 '빌딩 교차로(Crossroads Building)'<그림 7>는 뉴욕시의 빽빽한 빌딩 사이에 그려진 그림으로 어느 것이 진짜 빌딩이고 어느 것이 그림인지 구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이미지와 상황을 모호하게 만드는 불확실성의 관계 사이에서 탄생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바라볼 때 관객을 매우 당황하게 만든다.

4) 가구 및 오브제

오푸스 섹틸레(Opus sectile)[18] 기술을 이용하여 18세기(아마도 플로렌스에서) 사람들은 단단한 석재로 덮은 테이블을 만들었다. Charles-Joseph Flipart가 궁정화가로 있었던 스페인 Ferdinand 6세 왕가의 마음에 쏙 들 것 같은 이 테이블<그림 8>은 트롱쁘-뢰이유 기법으로 구상되어 있다. 즉 테이블 위에는 책, 펜 등의 오브제들이 논리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 있으나 이는 실제 오브제가 아닌 모자이크로 장식된 것들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이 단단한 석재들은 분명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에 매우 적합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듯 Flipart의 테이블에서 관객은 가구의 일부분이 된 트롱쁘-뢰이유 기법이 아주 특별한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세기의 Bernard Palissy는 정원에 유약을 입힌 테라코타[19] 파충류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와 매우 닮아 실제 도마뱀과 뱀들이 몰려들어 감탄했다고 한다. Palissy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들을 이용하여 동물이나 채소, 곤충들이 돌출 되어 새겨진 도기 접시들을 만들었다. 시각적 모호성에 매료된 시대의 창조적 상상력의 결과인 이 도기들은 예술품으로 인식되며 지금은 골동품점의 진열장에 놓여있다.

양배추나 상추 모양의 단지들은 종종 너무 완벽해서 관찰자를 매우 어리둥절하게 만든다<그림

9>. 매우 작은 크기로 작품의 안에 그릇형태를 담고 있는 것만이 다를 뿐 작품의 색깔과 형태가 실제 야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오브제 제작에 있어서 트롱쁘-뢰이유 기법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조각품이라 할 수 있는 Christian Renonciat의 사실적인 오브제들은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모든 정의를 초월한다. 그의 작품들은 실제 작품의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예술가가 오감을 사로잡는 변이를 통해 변형시킨 재료 즉 나뭇결의 형태로 제작된다. 그의 작품 '미국 소나무'<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으로 된 천으로 제작된 쿠션은 나무의 결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Roger Caillois가 말했듯이, 그에게 재료는 '재현하고 만들어진 사물을 보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위장된 그리고 모순적인 오브제이다'[20]. 왜냐하면 그에게는 작품의 주제가 바로 그 재료이기 때문이다.

에 전위적인 의상 디자이너에 의해 초현실주의적인 영감이 계승되어 보다 신선한 감각으로 재창조되고 있다'[21]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패션에 트롱쁘-뢰이유 기법이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초현실주의라는 예술사조를 접하면서부터이고 그 선구자는 Elsa Schiaparelli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작품세계를 알아봄으로써 패션 안에서의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발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Elsa Schiaparelli(1890~1973)는 1930년대 패션을 리드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당시의 초현실주의자인 Salvador Dali를 비롯하여 Jean Cocteau, Christian Bernard, Jean Michel Frank 등 유명한 예술가들과 친교를 맺었다. 이들과의 교우관계는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녀의 디자인을 놀라움과 충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가장 확실한 배경이 되었다[22].

1890년 로마의 귀족사회에서 태어난 그녀는 동

<표 1>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표현방법

기 법	표 현 방 법	작 품
그림 속의 그림	· 그림 안에,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는 상관없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공간 및 상황을 애매하게 만든다.	· 베로나 근처의 성스러운 가족의 환영 (Angolo del Moro) · 인간의 조건 Ⅰ,Ⅱ (Magritte)
인체의 응용	· 인체에 낯익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결합시켜 표현하려는 것이 인체인지 아니면 다른 이미지인지를 혼동하게 만든다.	· 능욕 (Magritte) · 붉은 모델 (Magritte) · 막 세네트 (Magritte)
채색된 건축물 외벽	· 건축물 외벽에 유리창, 길, 터널 등을 그려 넣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든다.	· 바흐 (Fabio Rieti) · 빌딩 교차로 (Richard Hass)
가구 및 오브제	· 가구 위에 당연히 놓여 있을만한 오브제를 그리거나 새겨 넣어 착시현상을 유도한다. · 오브제의 형태나 무늬를 그대로 재현해냄으로써 실제 사물로 착각하게 한다.	· 트롱쁘-뢰이유 테이블(Charles-Joseph Flipart) · 양배추 도자기 · 미국 소나무 (Christian Renonciat)

Ⅲ. 현대패션과 트롱쁘-뢰이유 기법

1. Elsa Schiaparelli

곽미영이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1930년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Elsa Schiaparelli가 창조한 많은 의상들의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최근

양언어학자였던 아버지와 천문학자였던 백부와 오빠를 둔 매우 아카데믹한 집안에서 자랐다[23]. 패션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가 패션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는, 영혼세계와 신비주의에 관심 많아 18세에 접신론자와 결혼하였으나 곧 이혼하고 딸과 함께 파리로 이주하여 막막한 생계를 해결하고자 친구들의 옷을 수선하면서부터이다.

Elsa Schiaparelli의 첫번째 디자인은 검정색 바탕에 실제 리본을 매어 늘어뜨린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흰색 보우 타이 무늬로 목둘레를 핸드 메이드한 니트 스웨터였는데, 그것은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1927년 패션계에서 매우 새롭고 독특한 작품으로 선정되어 보그지(Vogue)의 여러 페이지에 실리기도 하였다[24]. 이렇듯 그녀는 데뷔작품으로 '트롱쁘-뢰이유 스웨터'를 디자인함으로써 트롱쁘-뢰이유 기법과의 첫 인연을 맺게 되었다.

초현실주의들과 친분을 유지해온 그녀는 그들에게 영감을 받아 그들이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모드화 시키는데 몰두하였다. 바로 그런 아이디어는 기상천외한 것으로 파리 패션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은 사무용 책상 서랍모양으로 포켓을 단 수트, 진홍색의 바닷가재와 녹색 파슬리를 수놓은 흰색 이브닝 드레스, 혹은 레그 업 머튼(Leg of Mutton) 슬리브나 하이힐을 거꾸로 쓴 듯한 모자, 서커스의 익살꾼이나 곡마단 댄서를 본뜬 단추, 파리와 나비를 본뜬 단추와 액세서리도 그녀가 디자인 한 것이다[25]. 그밖에 Elsa Schiaparelli는 1936년 채색된 플라스틱 지퍼를 처음으로 의상에 도입하고 큐롯트를 외출복으로 만들어 내어 패션에 또 하나의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녀의 상상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거꾸로 입는 재킷을 디자인하여 앞과 뒤가 바뀐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으며, 두 개의 얼굴로 구성된 핑크 장미가 가득 꽂힌 꽃병을 의상의 등판에 디자인하여 수놓아 제작하였는데 이것은 Jean Cocteau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옆모습으로도 꽃병으로도 보이도록[26] 디자인되었다<그림 11>.

1937년 Salvador Dali와 Elsa Schiaparelli는 '찢어진-착각 드레스(Tear-illusion Dress)'<그림 12>란 작품을 공동제작 하였다. 그것은 실제로 군데군데 찢어진 케이프와 실제로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프린트 무늬의 드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드레스는 단정한 실루엣이 보이는 실용적인 면을 부정하면서, 은폐와 폭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페인 내전이 있었고 파시즘이 온 유럽을 뒤덮고 있던 시기에 발표된 이 의상은 정치, 문화 양면에서 강한 함축을 내포하고 있다[27].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30년대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Elsa Schiaparelli는 패션에서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인 오브제의 사용, 사물의 위치 이동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그녀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의상에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녀의 영향력은 현재까지 이어져 컬렉션에 등장하는 많은 작품들이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이용하여 기발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연출하고 있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트롱쁘-뢰이유 기법

현대패션에 나타난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그 표현방법에 따라 '조화', '인체의 응용', '앞과 뒤', '겉과 안', '미완성의 완성', '디테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조화

어느 것이 진짜 빌딩이고 어느 것이 그려진 빌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Richard Hass의 작품 '빌딩 교차로(Crossroads Building)'에서 처럼 이것은 주위환경과 의상이 하나가 되어 시각적으로 어느 부분이 의상이고 어느 부분이 주위환경인지 혼동하게 만드는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표현방법 중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 예로는 군인들이 적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착용하는 위장복이나 넓은 들판에서 동물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동물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입는 사파리복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사회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뒤로 숨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을 속이는 도시인들의 옷(Urban Camouflage Clothing)' <그림 13>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벽돌처럼 프린트된 의상을 입고 벽돌로 이루어진 벽 앞에 서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어

사람들이 벽돌벽에 동화되도록 위장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시각적으로 2차원과 3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시각적 이중 이미지[28]를 표현한 의상으로는 1983년에 발표된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영화에 바치는 헌정(Hommage au cinéma)' <그림 14>이라는 의상이 있다. 이것은 원피스의 앞가슴에 원숭이가 안겨있는 모습을 프린트하여 모델이 단순히 손을 앞으로 감싸는지 또는 자연스럽게 내리는지에 따라 원숭이가 실제 모델의 가슴에 안겨있는 듯한 3차원의 세계와 단지 원숭이가 프린트된 원피스인 2차원의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게 해 준다.

2) 인체의 응용

트롱쁘-뢰이유 기법 중 가장 애용되는 표현방법으로 신체의 부위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가슴, 손, 입술, 눈, 몸통 등이다. 특히 가슴은 의복 밑에 있는 신체를 의복 위로 표현해 냄으로서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던 가슴을 드러냄으로써 인간 내면에 대해 비합리적인 사회적, 도덕적, 정치적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순수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29]. Franco Moschino의 작품은 초현실주의자인 Magritte의 작품 '막 세네트 예찬'과 표현기법이 유사한 의상으로 볼레로 위에 가슴형태를 프린트하여 감추어야 할 유방이 실제 보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림 15>.

또한 스페인 영화 '키카'에 출연하는 '키카 안드레아'의 의상<그림 16>은 Jean Paul Gaultier의 작품으로 검정원피스의 가슴부분을 찢어내어 유방이 보이도록 제작한 듯이 보이나 실은 유방 위치에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진 가짜 유방을 덧입혀 부드러운 누드 형태를 표현하였을 뿐 실제 유방은 보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Roberto Cayalli가 그의 컬렉션에서 발표한 아름다운 드레스<그림 17>도 가슴부분을 십자형태로 찢고 사방으로 고정시켜 유방이 보이는 착각에 빠지게 하나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은 드레스 위에 프린트 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인체 중 벗은 몸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예로, '92년 봄/여름 컬렉션에 발표된 Jean Paul Gaultier의 작품은 슈트에 누드를 사실적으로 프린트하고 그 위에 반바지를 적나라하게 끌라쥬시켜 반바지차림의 몸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작품이다 <그림 18>.

3) 앞과 뒤

옷은 상하가 있고 앞뒤가 있다. 사람의 몸이 상하와 앞뒤가 구분되도록 생겨있기 때문이다. 상하를 무시하고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앞뒤를 무시하고 뒤집어 입으면 기능적으로 불편하고 어색하다[30].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던 Elsa Schiaparelli는 거꾸로 입는 재킷을 디자인하여 앞과 뒤가 바뀐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는데 이는 현실세계의 대립된 모습을 의상의 앞뒤로 표현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계승한 작품을 우리는 현대패션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John Galliano는 평범한 테일러드 재킷의 앞뒤를 뒤집어 관객에게 초현실적인 혼란을 주고 있으며 <그림 19>, Marcel Maron Giu는 가디간의 뒤에 단추를 달아 대부분의 포인트가 앞인 가디간의 포인트를 뒤로 집중시켰다<그림 20>. 이로써 입고 벗는데 기능적 장애가 생기긴 하였으나 디자인의 장애를 뛰어 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여성이 그것도 앞이 아닌 뒤에 넥타이를 매고 있는 모습<그림 21>은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이용해 옷의 구조나 입는 방법까지도 누군가에 의해 정반대의 뒤집기가 시도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앞뒤가 뒤바뀐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 앞뒤 구분에 대해 혼동하게 만든다.

4) 겉과 안

완성된 옷을 뒤집어 입는 방법으로, 안쪽의 모든 봉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실수로 옷을 뒤집어 입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트롱쁘-뢰이유 기법이다. 이러한 뒤집기 발상은 현재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인정받고 있다. 뒤집으면 정

상의 상태보다 메시지가 강하고, 숨기고 싶은 내부를 내 보임으로써 보다 더 진실한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이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을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옷을 뒤집어 입도록 최초로 생각해낸 디자이너는 파리 출신 디자이너인 Chantal Thomass이다. 그가 최초로 모델에게 뒤집어 입힌 옷은 니트소재로 만든 것으로 니트의 이음새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파격적으로 보이기보다는 위트가 넘치는 깜찍함으로 보였다. 그 깜찍함은 그녀가 추구하는 큐트한 이미지에도 잘 어울려 히트상품이 되었다[31]. 청바지와 청조끼 그리고 정장 재킷과 바지를 뒤집어 입힌 경우 <그림 22>는 훨씬 확실하게 뒤집어 입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의 충격이 더 크다.

5) 미완성의 완성

'미완성의 완성'이란 완성품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이 보여 미완성 상태의 의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정해진 틀에 안주하기보다는 기발하고 독창적인 사고력에 의해서 창조되는 작품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틀에 박힌 현실에 지친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에서는 볼 수 없는 미완성에서만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여유를 가져다준다.

재치와 유머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완성해 나가던 Franco Moschino는 남성복에서 '미완성의 완성'의 미를 한껏 발휘하여 '88/'89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선보였고<그림 23> '89/'90 가을/겨울 컬렉션에서 Jean Paul Gaultier도 역시 어깨와 주머니, 라벨, 그리고 이음선에 지그재그의 바느질선이 들어간 재킷을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은 봉제과정에 있는 미완성의 옷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미완성을 가장한 트롱쁘-뢰이유 기법, 즉 어엿한 완제품이었다.

또한 Yohji Yamamoto는 라벨과 주머니, 그리고 어깨솜 부분에 지그재그의 누빔선이 선명한 재킷을 발표하여 Franco Moschino와 Jean Paul Gaultier의 의상 표현방법을 계승하였다.

6) 디테일

버튼이나 칼라, 벨트, 스티치선, 프릴, 주머니 또는 니트의 꼬임 등의 디테일을 그려 넣어 마치 실제로 달린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장난기 어린 트롱쁘-뢰이유 기법이다.

Pascal Humbert 2000/2001 가을/겨울 컬렉션에 재미있는 의상을 발표했다. 그것은 원피스에 니트의 꼬임이 그려진 상의를 그려 넣어 원피스임에도 불구하고 니트 상의와 스커트의 투피스로 보이게 하는 의상들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것들

<표 2> 현대패션에 나타난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특징

기 법	외적 표현방법	내적 상징적 의미
조화	· 주위 환경과 의복 또는 평면과 공간을 구별하기 어렵게 표현	· 복잡한 사회에서 숨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 표현 · 2차원과 3차원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시각적 이중 이미지 표현
인체의 응용	· 의복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인체를 의복 위에 표현	· 감춤과 드러냄의 역설적 관계 강조 · 인간 내면의 강박관념에서 해방된 순수한 감각 표현
앞과 뒤	· 앞을 뒤로 그리고 뒤를 앞으로 표현	· 현실세계의 대립된 모습을 서로 인정하여 화해의 분위기 조성
겉과 안	· 마치 의복을 뒤집어 입은 것처럼 표현	·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인간을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
미완성의 완성	· 완제품이지만 미완성인 듯 착각을 일으키게 표현	· 틀에 박힌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완벽한 모습보다는 미완성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여유를 동경
디테일	· 의복 위에 칼라나, 벨트, 주머니 등을 그려 넣어 실제로 달린 것처럼 표현	· 상식과 논리를 뒤집고 각박한 현대사회를 재치와 유머로 풍자

이다 <그림 24>.

2002년 신상품으로 Franco Moschino 브랜드가 제안한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아이템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 작품들은 프릴이 없는 블라우스에 버젓이 프릴을 그려 넣고 A라인 스커트에 벨트와 주름을 그려 넣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트렌치 코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플한 코트로 보는 이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기도 한다<그림 25>. 이렇게 Franco Moschino 브랜드는 상식과 논리를 뒤집어 각박한 현대사회를 유머와 재치로 풍자하고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현대복식에 나타난 트롱쁘-뢰이유 기법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우선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개념을 고찰하고 그 표현방법을 분류하였으며, 현대복식의 선구자이자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본격적으로 의상에 적용한 Elsa Schiaparelli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디자인에 응용한 현대복식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의상을 창조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예술의 표현기법 중 하나로 주변 환경에 완전히 통합되고, 철저한 게임 연출에 의해서,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현대복식에 새로운 조형양식을 선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의상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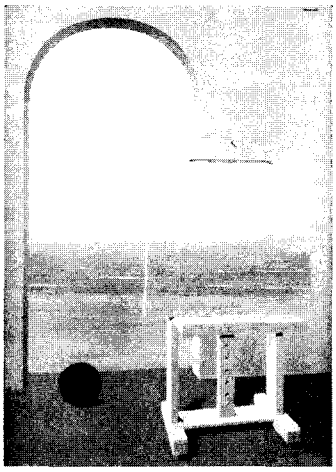
둘째, 수세기 동안 관객은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이용한 회화나 조형물 앞에서 언제나 속아왔고 또한 이렇게 눈속임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종종 얼마만큼의 관객들의 묵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표현방법은 '그림 속의 그림', '인체', '건축물 외벽', '가구 및 오브제' 등으로 요약된다.

셋째,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처음 의상에 적용시키기 시작한 것은 초현실주의자인 Elsa Schiaparelli에 의해서임을 알 수 있었고 그녀의 영향력은 현재까지 이어져 컬렉션에 등장하는 많은 작품들이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이용하여 초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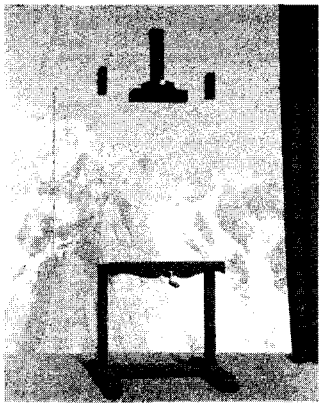
넷째, 현대복식에 나타난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조화', '인체의 응용', '앞과 뒤', '겉과 안', '미완성의 완성', '디테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Elsa Schiaparelli의 뒤를 이어 트롱쁘-뢰이유 기법을 응용하여 현대복식을 재창조한 디자이너로는 Adelle Lutz, Jean Charles de Castelbajac, Issey Miyake와 Fanco Moschino, Jean Paul Gaultier, Roberto Cayalli, Marc Jacobs, John Galliano, Marcel Maron Giu, Chantal Thomass, Yohji Yamamoto, Pascal Humbert 등이 있으며 이렇게 의상에서의 트롱쁘-뢰이유 기법은 최근에 전위적인 의상디자이너들에 의해 신선한 감각으로 재창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의상이 현대의상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자료의 부족과 선행연구의 전무로 인해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표현방법과 현대복식에 나타난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분류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져 보다 폭넓고 광범위하게 다루지 못했음에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좀 더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연구하여 트롱쁘-뢰이유 기법의 표현방법과 현대복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Angolo del Moro
'베로나 근처의 성스러운 가족의 환영', 1581
「Le Trompe-l'oeil」,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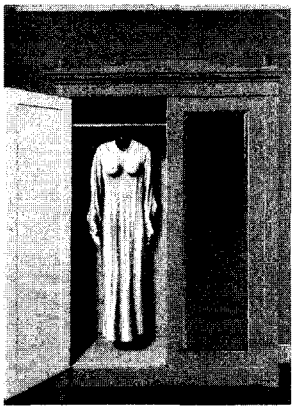


<그림 2> René Magritte
'인간의 조건 II', 1935
「René Magritte」,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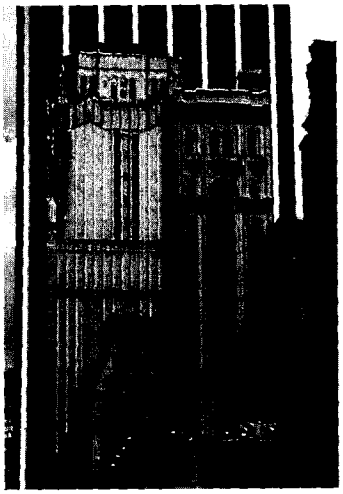
<그림 3> René Magritte
'산봉우리의 유혹', 1942
「René Magritte」, 1990

<그림 4> René Magritte
'붉은 모델', 1937
「René Magritte」, 1990



<그림 5> René Magritte
'막 세네트 예찬', 1937
「René Magritte」,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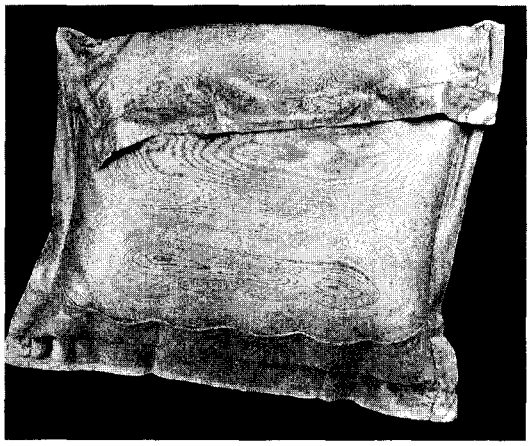
<그림 6> Fabio Rieti
'바흐'
「Le Trompe-l'oeil」, 1992



<그림 7> Richard Hass
'빌딩 교차로', 1936
「Le Trompe-l'oeil」, 1992

<그림 8> Charles-Joseph Flipart
'트롱쁘-뢰이유 테이블', 1760~1770
「Le Trompe-l'oeil」, 1992

<그림 9> '양배추 도자기', 18세기
「Le Trompe-l'oeil」,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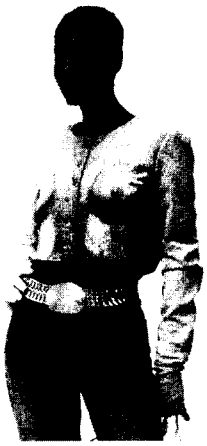
<그림 10> Christian Renonciat
'미국 소나무', 1979
「Le Trompe-l'oeil」, 1992

<그림 11> Elsa Schiaparelli
'이브닝 케이프', 1937
「Elsa Schiaparelli」, 1997

<그림 12> Elsa Schiaparelli
'찢어진-착각 드레스', 1937
「Elsa Schiaparelli」, 1997

<그림13> Adelle Lutz
'남을 속이는 도시인들의 옷', 1986
「Fashion and Surrealism」, 1987

<그림 14> Jean Charles de Castelbajac
'영화에 바치는 헌정', 1983
「Encyclopédie de la Mode」, 1989



<그림 15> Franco Moschino
'93 봄/여름 컬렉션
「Franco Moschino」, 1996

<그림 16> Jean Paul Gaultier
스페인영화 : '키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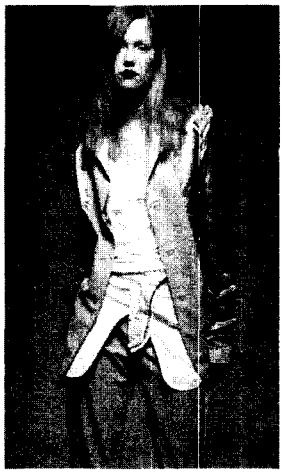
<그림 17> Roberto Cayalli
'트롱쁘-뢰이유 드레스'
「창의력 개발 3」, 2000

<그림 18> Jean Paul Gaultier
'92 봄/여름 컬렉션
「패션디자이너 199」, 1995

<그림 19> John Galliano
'앞- 뒤 뒤집기 패션'
「창의력 개발 1」,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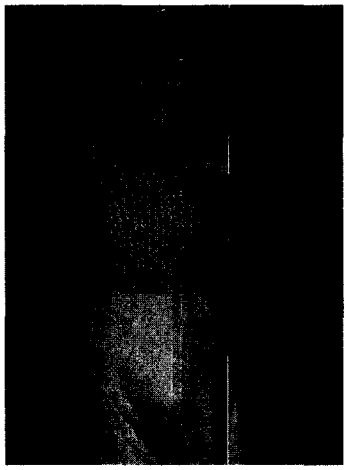
<그림 20> Marcel Maron Giu
'앞- 뒤 뒤집기 패션'
「창의력 개발 1」, 2000

<그림21> '앞-뒤 뒤집기 패션'
「창의력 개발 1」,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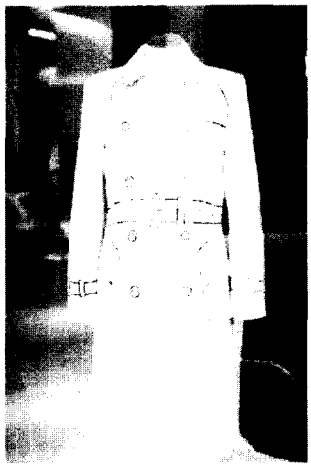


<그림 22> '겉-안 뒤집기 패션'
「창의력 개발 1」, 2000

<그림 23> Franco Moschino
'88/'89 가을/겨울 컬렉션
「Franco Moschino」, 1996



<그림 24> Pascal Humbert
2000/2001 가을/겨울 파리 컬렉션
「Collections」Vol.30



<그림 25> Franco Moschino
'트롱쁘-뢰이유 코트
「Firstviewkorea.com」, 2000

참고문헌

1)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 유한태, 착시의 조형심리, 월간 시각디자인, 1987, p.91.
3) 백철, 시각디자인에 있어서 착시효과의 특성 및 분류와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배재논총, 제1권, 1996, p.116.
4) Zeuxis(제욱시스) : 고대 그리스의 화가. BC 5세기 펠로폰네소스전쟁 당시 화가인 아폴로도로시의 제자로서 아테네에서 활약하였다. 빛과 그림자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의하여 대표적인 음영화가가 되었다. 현존하는 작품은 없으나, 〈헬레나상(像)〉 등의 걸작이 있었다고 전하여진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5) Miriam Milman, Le Trompe-l'oeil, SKIRA, 1992, p.6.
6) 시라이지 가즈야 지음, 김수석 옮김, 착시조형, 지구문화사, 1998, p.2
7) Miriam Milman, *op. cit.*, p.60.
8) *Ibid.*
9) 곽미영,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43
10) J.L.Perrie편, 김정화 역, 20세기 미술의 모험 I, AIP, 1990, p.352.
11) 매슈 게일 지음, 오진경 옮김, 다다와 초현실주의, 한길아트, 2001, p.340.
12) 곽미영, *op. cit.*, p.35.
13) 매슈 게일, *op. cit.*, p.340.
14) Suzi Gablik, Magritte, Graphic Society, 1976, p.124.
15) Gilles Néret, Erotic Art, Benedikt Taschen, 1993, p.30.
16) 그리자유(Grisaille) : 회색 계통의 채도가 낮은 한가지 색만으로 그리는 화법 또는 그 작품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17) 프리즈(Frise) : ① [건축] (원주의) 프리즈, 소벽. ② (방 꽃병 따위의 윗부분의) 띠 모양 장식, 장식띠 Dictionnaire Français-Coréen, 삼화, 1992
18) 오푸스 섹틸레(Opus sectile) : 모자이크(Mosaic)의 일종으로 대리석이나 그 밖의 돌을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 잘라 짜 맞추는 기법을 말하며 건축 등에서는 바닥이나 벽면 등을 장식하고, 공예품에서는 표면에 회화효과나 장식성을 나타내는 미술방식이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19) 테라코타 (terra-cotta) : 원어는 구운 흙[粘土]을 뜻하나, 일반적으로는 미술적 조각작품의 소재를 말한다. 테라코타는 점토로 조형한 작품을 그대로 건조하여 굽는 것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으나, 이 방법은 극히 작은 작품에 한정되며, 조금만 커지면 점토층이 두꺼워져서 구워낼 때 갈라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고대인도 일찍부터 형틀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즉, 돌·나무·점토 등의 재료로 원형의 외형을 만들고 거기에 점토를 채우되 내부를 공동(空洞)으로 하고, 점토벽을 얇게 만들어 건조시킨 후 외형을 벗기고 구워내는 방법이다. 현재 외형은 주로 석고를 사용하나 옛날에는 점토제나 돌을 조각한 석형(石型) 등도 있었다. 테라코타는 현재도 조각작품의 소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20) Miriam Milman, *op. cit.*, p.95.
21) 곽미영, *op. cit.*, p.2.
22) 박선위, 복식조형의 초현실적 표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19.
23) 가재창, 패션디자이너 199, 1995, p.115.
24) 곽미영, *op. cit.*, p.80.
25) 가재창, *op. cit.*, p.117.
26) 정진영, Surrealism이 Fashion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54.
27) *Ibid.*, p.46.
28) 곽미영, *op. cit.*, p.88.
29) 김명주, 현대복식과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26.
30) 김종복, 창의력개발 1, 도서출판 시대, 2000, p.56.
31) *Ibid.*, p.63.